

대통령상

광주 문화중학교 교사 형지영

## 책벌레 선생님의 별난 책사랑, 별난 학생사랑,



형지영 교사는 학생들에게 책읽기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있어 교사가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사례는 없다고 한다. 얹지는 모범을 보일 것이 아니라 교사가 먼저 독서를 '놀이' 삼아야 한다는데, 독서교육에 관한 기발한 아이디어 역시 '놀이'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형 교사의 독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그만큼 유별나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서점 주인이 되거나 도서관사서 선생님이 되어야지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는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독파하며 꿈을 키웠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와 책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며 정신의 키를 키웠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의 감동들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에게 '독서메모'를 권장하는데 제가 먼저 경험해 보아 유익함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독서교육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독서가 주는 효과를 배가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합니다."

형 교사는 독서교육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그 중 '도서관 프로그램'은 타 학교에서도 모델삼을 정도로 실

효성이 높다. 총체적 독서교육 7단계란 '도서관 운영을 통한 독서환경 조성', '책 소개 릴레이, 독서방송을 통한 독서동기유발', '단계별 모형을 통한 독서능력향상', '교과연계 독서활동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신장', '바른 인성을 키우고 자기성장을 돋는 독서클리닉', '평생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습관 형성'으로 구성된다. 어느 하나 빼뜨릴 수 없는 아이디어의 보고인데, 이런 프로그램들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은 형 교사는 지난 2001년 『통합적 독서 교육』을 출간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지도교사였던 저도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쑥쑥' 자라더라구요. 독서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을 위해 또 한번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상을 받고나면 아이들은 제법 어른이 되지요. 아이들을 챙겨 독서대상에 매년 응모를 했는데, 다섯 해 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노력에 상이란 것이 더해지고 나니 '선생님, 이런 책읽기는 어때요?' 하며 아이들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제안하기도 한답니다."

형 교사는 독서교육을 시작하며 전만큼 많은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한다. 그렇지만 제 몫의 독서를 학생들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보람도 없다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힌다'는 김구 선생의 말도 책을 가까이 한 사람만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법이라는데, 독서를 게을리하면

삶에 대한 성찰도 게을리지는 때문인지 정서가 확연히 거칠어지는 걸 느낀단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성찰을 갖게 하는 까닭이다. 학생들이 바르게 커가는 데는 이러한 자기성찰만큼 좋은 자양분은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책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독서교육에 있어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제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양식을 아이들과 나누게 된만큼 더욱 행복한 책읽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은 사람을 외면하는 법이 없다. 책과 늘 가깝게 지낸 형 교사는 자신의 꿈을 보기 좋게 이루었고, 오늘 독서대상 '대통령상'이라는 값진 성과까지 더불어 안게 되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오랫동안 참된 독서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알기에 한편 마음이 불편하다"며 형 교사는 인터뷰 내내 부끄러워했는데 반드시 하고 잘 닦인 형 교사의 마음 역시 책이 만든 것일 터였다.

#### 국무총리상

경북 의성중학교 교사 김건수

### 황소고집 독서교육으로 독서대상과 질긴 인연 맺어



김건수 교사는 독서대상과 인연이 많다. 지난 2000년 독서대상에서 동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인연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01년, 김 교사가 독

서지도를 한 학생이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겹경사로 김 교사가 국무총리상을, 지도학생 변상섭 군이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동시에 받는 기쁨을 누렸다.

“독서교육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로서 오늘과 같이 보람된 날도 없을 겁니다.”

독서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김 교사의 황소고집은 꺼울 수 없다. 독서토론반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작가로 이문열 씨를 말하자 김 교사는 바로 작가에게 전화를 했다. 밤낮없는 김 교사의 전화에 작가는 두 손 들고 영양으로 내려왔다.

“좋은 작가와 갖는 현장경험이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유익하다는 것을 배웠지요. 이후로 아이들이 먼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동기유발이 중요합니다.”

김 교사는 1984년 안동 KBS방송국으로부터 사도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 1천만 원이 넘는 제자의 짐장병 수술비 마련을 위해 학급 모금운동과 언론사 모금운동을 펼쳐 제자를 살린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를 더하자면, 오늘 김 교사의 독서대상은 또 하나의 사도상이라 불릴 수 있다. 몸보다 더욱 소중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렇듯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사표師表이다.

#### 국무총리상

서울 청구초등학교 교사 이정숙

### 독서의 가치는 지식이 아닌, 인성과 심성계발에 있습니다



“제 독서교육은 ‘보물찾기’입니다. 책이 좋아 책에 묻혀 지냈고, 아이들과 함께 책 속의 보물들을 찾으며 즐거워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쁩니다.”

이정숙 교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독서교육을 중요시한다. 책 읽는 가족 대화시간을 운영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계획하는 등 가정독서교육에 힘을 쏟는 이 교사의 애정은 남다르다.

“자녀가 컴퓨터와 텔레비전에 빠져 있을 때, 아랑곳 않고 책을 읽을 있는 수 있는 부모의 자녀라면 ‘읽어라, 읽어라’ 잔소리 하지 않아도 은연중 자녀의 독서가 실천 됩니다. 독서를 통해 사는 일의 아름다움 까지 깨우쳐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교육에 가장 열의를 보인다는 유태인의 가정교육에서 유독 돋보이는 점도 ‘독서’지요.”

이 교사의 독서교육은 인성과 심성

계발에 가치를 두고 있다. 지식을 넓히는데 필요한 것이 독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독서는 여러 유형의 삶을 간접체험하게 하는데, 이 체험의 공간이 넓어지면 창의적 사고력이 풍부해져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사의 설명이다.

“책을 멀리 했구나 싶으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길을 잃은 순간이면 또 주저 없이 책을 펼쳐듭니다.”

이 교사는 현실에서 부족함만을 보는 자신을 부끄럽게 했던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을 학생들에게 ‘강추’하면서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  
취재 박용두 기자